

계룡시 출범과 계룡지역의 발전 방향

忠淸南道 行政副知事

李 明 洙

I. 들어가는 말

충남 민선 자치 도정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논산시 두마면 지역의 「계룡시」 승격이 곧 공식 출범(9. 19)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 30일 “충청남도계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긴 산고 끝에 드디어 그 결실이 이루어졌다. 백두대간(白頭大幹) 금남정맥(錦南靜脈) 끝부분인 계룡산에 새로운 기운(氣運)이 크게 솟구치는 듯 했다. 천황봉에 올랐을때의 상큼한 느낌처럼 참으로 감격스럽고 환희에 찬 쾌거였다.

조선초기 문장가인 서거정(徐居正)이 찬미했던 노래가 어디선가 다시 들리는 듯 했다. ‘계룡산 높은 봉이 층층이 푸르더니 맑은 기상 용솟음쳐 스스로 장백이요, 산이 첩첩하여 용이 서리우고 봉우리 구름들이 만물을 가르네...’

역대 세 분의 대통령들의 지속된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1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계룡시」라는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간 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경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라는 다소 비정상적인 행정구역 안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함께 힘을 모아준 주민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로써 충청남도는 6개시·9개군에서 7개시·9개군의 증편된 행정

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제 「계룡시」 승격의 감회에서 벗어나, 앞으로 계룡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더 중요한 일이며 계룡시 승격 노력때보다 더 큰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계룡 지역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이 지역의 특수 여건의 분석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짚어 보며 ‘위대한 계룡시대’를 여는 계룡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계룡지역의 역사성 재조명

계룡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당나라 장초금의 한원(翰苑) 백제조(百濟條)에서는, 계룡산을 「계산동치(鷄山東峙)」라 하여 일명 「계산(鷄山)」 「계림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의 계(鷄)는 새벽을 알리는 닭, 산(山)은 밝아 오는 산을 의미하여, 계룡 지역은 어둠 속에서 환하게 새어나오는 광명을 상징한다는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환인, 환웅과 그 아들 단군(檀君) 그리고 백두산은 동이 터 오르는 계룡산의 어의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무학대사가 신도(新都)를 정하기 위해 이태조와 함께 신도안의 좌우산세를 둘러보고 「이 산은 한편으로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 금닭이 알을 품은 형국)이요, 또 한편으로는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 : 용이

날아 하늘로 날아가는 형국)이니 두 주체를 따서 계룡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데서 계룡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이에 「계룡(鷄龍)」이라는 것은 닭(鷄)과 용(龍)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고에 변함없이 풍운을 몰고 오며 금강(錦江)까지 합쳐진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전해지는 얘기가 많은 것은 계룡산이 그만큼 신비롭고 수려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룡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자아나게 한다. 그만큼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곳이 계룡이다.

일찍이 엄사리에서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발견된 바 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신라군에게 패한 후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운집하여 백제 부흥을 위해 신라와 맹렬히 싸운 터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서는 특히 신도안 지역에서 살면 득세, 기세를 보인다고 하여 관(官)의 후환이 두려워 감히 살수 없을 정도의 유명한 지역이라고 정감록(鄭鑑錄)에서도 적고 있을 정도다.

이를 입증하듯 일본이 물러나고 한국이 독립이 되면 그 때의 도움지는 바로 「신도안」이라고 믿는 사람이 급증했다 한다.

이처럼 계룡지역은 고대 이래로 종교·문화적 성소(聖所)로 발전해왔고 때로는 정치수도의 입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는바, 바로 이 지역에 우리 나라 국방의 중추 기능인 「3군 본부」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계룡시」라는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땅인 이 계룡 지역은 국력의 신장에 상응하고 민족의 열이 담긴 이상적인 도시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 줄 특수한 지역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계룡 지역의 특수 여건과 과제

1. 국방의 중추 기능인 「3군본부」가 위치/국방의 메카

앞에서 그 역사성을 살펴 본 바와 같이 과거는 물론 계룡 지역은 지금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이 들어선 자주 국방의 중추 지역이 되고 있다.

1989년과 1993년에 국방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육군, 공군본부와 해군 본부가 각각 이곳으로 이전했다. 3군 본부가 한 곳에 위치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로서 이로 인해 계룡 지역은 명실공히 「자주 국방」의 요람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실로 온 국민의 안보 역량을 총집결하여 「계룡시대」를 열어가야 할 상징 지역으로 변화한 것이다.

통일 조국이 이룩될 때까지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이곳은 국방 중추 지로서의 특수한 여건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2. 가장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현재 계룡시의 개요를 살펴보면 전 4.19km², 답 6.51km², 임야 40.9km² 등 총 면적은 60.68km²로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 지방자치단체다.

인구는 약 3만 여명(남녀 각각 1만 5 천여명)이고, 총 9,875세대로

1만여 세대가 채 안 된다.

행정구역은 1동 2개 면이며 학교는 초교 3개, 중교 2개, 고교 1개로서 모두 6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나 면적 면에서 아주 작은 규모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로 출발하는 곳이 「계룡시」다.

3. 「민·관·군」의 화합 풍토 조성

충남발전연구원이 2003년 7월 6일 계룡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복지시설의 부족이 49.9%,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간에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이 16.3%로 나타났다.

또한, 「3군 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53.8%가 지역사회에 교육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고, 28.8%는 군·민 화합 기능에도 계룡대가 중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 주민과 군인 가족간의 이질감이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즉, 「계룡 지역」내 「민·관·군」의 화합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4. 새로운 지역개발 체계의 확립

계룡시의 출범은 새로운 개발축의 형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계룡 지역은 대전 - 논산 - 장항을 잇는 서남권 개발의 기폭제이며 중부권 개발의 활력소가 되고 동북아시대를 향한 서해안권 개발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토지자원과 분산된 취락구조, 미약한 도시기반등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광역도시개발 체계를 확립하며 국방중추기능의 원활한 지원 기능을 증폭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전 대도시로 부터의 강력한 도시기능의 예측현상을 배제하고 선진도시환경과 전통 역사·문화의 장(場)이 조화되는 시범적 전원도시로서의 도시다움을 창출해 내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V. 계룡시 출범에 따른 계룡지역 발전 방향

그간 충청남도에서는 1990년 2월 27일 계룡출장소를 설치하고, 「계룡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총 30개 사업에 3조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13개 사업에 9천 362억원을 투자하는 등 이 지역의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해 왔다. 그러나 계룡시로 승격된 이 시점에서는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발전 방향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계룡시 설치의 주된 이유가 우리 나라 국방의 중추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형 군사·전원·문화도시로 육성’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우선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 계룡 신도시를 처음계획할 당시의 주변지역 및 계룡지역의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도청이전 및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공간

구조의 변화예상, 국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 접근성 향상등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미지의 도시형상과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 자연친화적인 「전원형 문화도시」의 新개념 도입 개발

계룡시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첫 번째 관련사항은 천혜의 명산인 계룡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연과 친화적이고 전원형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일이다.

그간 인위적이고 도식적인 도시 개발 방식에서 자연과 문화를 중시하는 도시 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까지 국내의 다수 신도시가 당초 출발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단편적이고 일률적 이어서 상당부분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계룡지역의 경우 3군 본부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자연도 즐기고 문화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계룡시만의 독창적이면서 환경과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군(軍)과 더불어 생태 및 문화의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 5만 정도의 저밀도·자연 친화형 문화도시로 개발하는 「新개념 도시」로 적극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계룡산 등산지의 특성과 국방 메카로서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려 나가는 것 또한 신도시개발의 요체라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 무늬만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룬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2. 새로운 「군사 도시」의 모델 창조

계룡시의 성격과 기능으로 우선 고려되는 것이 「군사도시」 개념이다. 「군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계룡시의 경우는 다른 신도시와는 전혀 다르다. 군사시설 중에서도 핵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공간구조, 토지이용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군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룡 지역의 발전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기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군과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 되도록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에 깨끗한 「군사도시」로서의 명소 역할이 가능한 모델중의 모델로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버지니아주 「알린 톤」 카운티와, 뉴욕주의 「하이랜드」 시, 일본의 「사세보」 시 등을 들 수 있다.

3. 「민 · 관 · 군」 간의 Partner-Ship 구축

계룡 지역의 인구 분포를 분석해 보면, 지역적인 특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국방의 중추 기능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군인과 그 가족들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전체 인구 약 3 만여 명중 군 절반에 가까운 46.6%가 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53.4%**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행정도 군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앞으로 발족될 市행정기구의 개편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보다 안정되고 조화로운 계룡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행정, 군인과 그 가족」 간의 상호 협력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군인과 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28.8%**가 민·군 화합에 있어서 3군 본부인 계룡대의 중추적인 역할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민·군 파트너십 형성의 매개역할은 주로 문화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계룡지역의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 이벤트, 3군 본부와 연계된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유치함으로써 그 접점과 활력의 일단을 찾게된다. 계룡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시넬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기반과 공간을 확보토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서해안 지역 등과 연계한 「관광 명소」로 개발

약 **920km**의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서해안권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제 문화권, 그리고 내포 문화권 등 기존의 도내 관광 지역과 연계하여 하나의 「군사문화」라는 독특한 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이들과의 관광 벨트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군 관련 시설을 개방,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국민의 국방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국방 메카로서의 장점을 키워 관광 명소로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역 관광의 종합적인 범위는 물론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주변지역과 공동 발전 및 협력 방안 모색

논산 지역에서 계룡시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변화는 되었으나 그간의 역사성과 동질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계룡 지역만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논산시와의 연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에 논산시등 인접 지역과 함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조화속에 공동발전 방안을 추구하는 가운데 각자의 기능과 특성을 살린 개발로 특화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치방안중의 하나로 계룡·논산·대전이 공동발전과 협력방안을 담는 광역도시 계획의 성격을 갖는 계룡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자족도시」로서의 기능 보강

자족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기반 조성방안을 모색하되, 대덕연구단지와 계룡대의 특수성을 살린 군사과학기술측면의 산업유치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V. 맺는 말

계룡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이번 「계룡시」의 역사적인 승격과 출범을 환영하고 많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우선 市승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90%가 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는 10월 30일에는 계룡 지역 주민들이 직접 초대 시장을 선출하고, 시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의원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이로서, 계룡시는 본격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 거듭나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계룡지역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대로 구상·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앞으로 긴 안목의 「계룡시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수립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다 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 「계룡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수정이 불가피 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변화된 여건 등을 적극 검토 반영 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룡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 모두 국가의 중추적인 국방의 메카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데 큰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계룡시 승격과 출범은 앞으로 계룡 지역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됨과 동시에 民選 自治道政에도 더 큰 활력소가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위대한 계룡 시대’를 창출해 나가는 데에 모두가 혼신의 힘을 경주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룡시의 승격을 계기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도 더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